

강릉아산병원 지역민을 위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 확대 운영



강릉아산병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 모습.

강릉아산병원은 5월 12일부터 지역 내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을 확대 운영한다. 이번 증설로 기존의 내·외과계 3개 병동(127병상)과 함께 총 169병상 규모의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을 갖추게 됐다. 이는 전체 병상(692병상)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은 지역 환자들의 시간적·경제적 간병 부담을 줄이며 동시에 전문 간호 인력이 24시간 전담하여 더욱 안전하고 질 높은 입원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지역 환자들은 간병에 따른 각종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었으며, 환자중심의 의료서비스를 보다 안정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강릉아산병원은 2017년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처음으로 도입한 이후 단계적으로 병상을 확대하며 서비스 범위를 꾸준히 넓혀 왔다.

정읍아산병원 통합돌봄 시스템 구축 업무협약 체결



5월 28일 통합돌봄시스템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한 정읍아산병원 공공보건의료센터 박경숙 과장(오른쪽에서 세 번째)과 관계자들.

정읍아산병원은 5월 28일 퇴원환자의 지역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정읍시, 정읍사회복지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단기적인 의료지원에 그치지 않고, 퇴원 이후까지 연속적인 돌봄을 제공하는 지역 기반의 통합돌봄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환자 중심의 케어플랜 수립 ▲보건·의료·복지 연계를 통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퇴원환자 공동 사례 관리 ▲관련 사업에 대한 자문 및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한다. 이를 통해 사회적 입원 문제를 해소하고, 감염병 위기 대응 및 지역사회 감염병 관리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성아산병원 고혈압·당뇨 환자 위한 건강검진 지원



보성아산병원은 보성군과 협약을 맺고 고혈압과 당뇨병 등 만성질환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합병증 정밀검사를 무료로 실시했다. 6월 2일부터 7월 4일까지 실시한 이번 검사는 만성질환자의 건강관리를 강화하고 합병증을 조기에 발견해 중증 질환으로의 진행을 예방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의료취약계층을 우선 선정해 합병증 검사비를 지원했으며 ▲신장 기능 검사 ▲콜레스테롤 ▲미세 단백뇨 ▲경동맥초음파 등 주요 검사를 실시했다. 고혈압 환자에게는 심전도검사를 추가로 실시했다. 🌐